

■ 업그레이드 me

전략적 책 읽기

'전략적 책 읽기' 가이드 북

특정주제 '한우물 깊이 읽기'

끊임없는 질문 '비판적 독서'

"이 많은 새 책들을 언제 다 골라서 읽나..."

매주 서점의 신간과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책이 쏟아져 나오고 진열대는 금세 새 책으로 채워진다. 책을 사보기 위해 서점에 들어선 사람들은 방대한 책들에 압도되곤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단 한 권을 읽든 100권을 읽든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골라냈는가'이다. 또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 읽었느냐다. IGM 세계경영연구원(www.igmbiz.org)이 소개하는 효과적인 '책 읽기'의 노하우 5W1H에서 발췌했다.

육하원칙 세워 목표·방향 설정

서문·마지막 장 반드시 읽어야

자기계발서 필요한 내용 뽑아서

◇ 육하원칙을 세워 읽어야=글쓰기의 기본인 '5W1H'를 책읽기에 대입하는 것이다. 책 읽기 전에 Why(왜 책을 읽는가) What(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Who(누구와 읽을 것인가), When(언제 읽을 것인가), Where(어디서 읽을 것인가), How(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6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책을 읽는 목표가 명료해지고 책읽기 방향도 설정할 수 있다. 질문에 답하므로써 책읽는 방법을 익히는 등 자신만의 독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주제를 정해 깊이 읽기=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깊은 안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도서를 최소한 수십권 짝 중적으로 읽어야 한다. 한 저자의 책을 쓴 순서대로 읽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앤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1970), '제3의 물결'(1980), '권력이동'(1990)을 순서대로 읽어도 좋다.

한 주제를 가지고 저자별, 출간 순서대로 비교하면서 읽는다면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고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특정 주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자연스레 생긴다.

◇ 이어 읽기=한 가지의 테마에 관련된 책을 차례로 읽어나가는 방법이다. 유래인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성서'를 먼저 읽는다. 성서를 읽다 보니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다른 고대 사회에서도 홍수를 다루었는지 찾아보는 식이다.

또 홍수 설화를 다루고 있는 '잉카, 마야 문명'에 대해 읽다 보면 현재 그 지역에 대해 궁금해지고 '중남미 여행'과 같은 책에도 손이 간다. 마치 감자를 캐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하나님의 책을 밭에서 캐면 넝쿨처럼 이어진 책들이 줄줄이



8일 광주시 서구 영풍문고에서 시민들이 모여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 책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서로 질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달려온다. 이 방법은 관심사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건너뛰며 읽기=건너뛰기 독서는 책의 전체 내용을 빨리 파악해야 하거나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읽어야 할 때 유용하다. 경영, 경제, 자기계발서를 읽는 자료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먼저 주제를 명확히 정하거나 목차를 중심으로 키워드, 요점에 집중하는 것이다. 책 표지와 날개에 실린 내용을 읽는다. 여기에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문장들이 실리기 때문이다. 서문을 정독하는 것도 좋다. 저자는 서문에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에너지와 정성을 본문 이상으로 쓴다. 따라서, 서문에는 저자가 독자에게 펼치려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고 호소력 있게 정리돼 있다.

1장과 마지막 장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 저자가 상대적으로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은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다. 첫 부분은 책의 전체 내용과 핵심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실용적인 지식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 질문하면서 읽기=읽고 있는 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지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느냐에 달렸다. 좋은 질문은 단순한 관심을, 꼭 이루어보겠다는 목표로 연결 짓게 한다.

'책읽기의 즐거운 혁명'의 저자 장경철 교수는 질문 독서를 권장한다. "그 책이 어떤 맹점을 다했고 있는지 미리 질문하고 읽어야 합니다. 좋은 독서법은 저자의 의중과 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책의 관점과 기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질 때에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를 위해선 '왜?'와 '어떻게?'를 함께 질문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저자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등이다. 책 속에서 '왜?'에 대해 답을 찾았다면 '어떻게?'를 통해 자신만의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독서를 하고 싶다면 질문을 던져보자.

마구잡이로 책을 읽어도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감동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적으로 독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결과물의 넓이와 깊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대통령의 독서법=우리 나라를 이끈 8인의 대통령의 대통령들의 독서 비법을 통해 성공 노하우를 이야기 하는 책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이다. 대통령들의 독서 비법을 통해 나만의 독서 노하우를 만들고 보고, '정상에 선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성과를 거둔 사람들'로부터 성공 노하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최진 지음·지식의 숲(넥서스)·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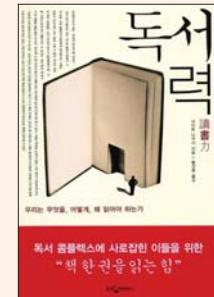
◇ 전략적 책읽기=책을 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읽는 독서 지침과 체계적이고 상세한 단계별 노하우를 소개한다.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방법, 자신만의 독서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주어진 시간 내 더 많은 지식을 얻는 법, 책에서 얻은 지식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법 등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스티브 레빈 지음·밀리언하우스·1만2000원>



◇ 읽어야 이긴다=독서의 '전前, 中中, 후後'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첫 단계인 '독서 전前'에서는 독서가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효용에 대해 설명한다. 본격적인 '독서 中中' 단계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독서를 하기 위한 도서선정법과 독서기술에 대해서 자세히다룬다. '독서 후後'에서는 단순히 책을 읽은 것으로 독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세롭게 활용하기 위해 독서 후 정리법, 독서를 실제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신성석 지음·교보문고·1만2000원>



◇ 독서력 = '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독서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왜 읽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까지 독서에 관한 전방위적인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단계별 책을 읽는 방법, 독서로 문화, 자신만의 책장을 갖는 것 등 책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또 책 선물하기, 도서관 서가 무작정 거닐기, 읽은 내용 인용하여 누군가에게 전하기 등 생활 속에서 책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1만1000원>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 홀 : 연인, 친구, 가족 (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평 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각종 모임 및 행사 예약(500석 완비)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출장뷔페 전문

